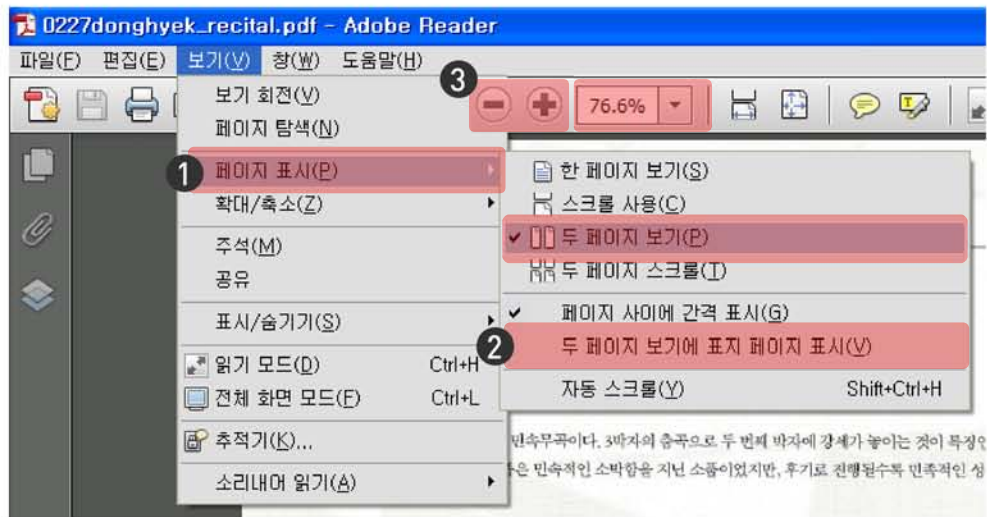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Mischa Maisky**

---

**Thomas  
Zehetmair**

---

**Musikkollegium  
Winterthur**



#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대교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렉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 CREDIA

## Upcoming Programs

### CIELOS 투어 프로그램

↳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9/19~29

###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2019년 12월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장 | 12/19

Mischa Maisky &  
Musikkollegium Winterthur  
with Thomas Zehetmair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

2019년 10월 25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8PM Friday, October 25,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Thomas Zehetmair, Conductor

첼로, 미샤 마이스키 Mischa Maisky, Cello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Musikkollegium Winterthur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sup>th</sup>**

베토벤 1770-1827  
독일

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번호 84

8'

슈만 1810-1856  
독일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29

25'

I. 너무 빠르지 않게

II. 느리게

III. 매우 생생하게

중간 휴식

CREEDIA

브루흐 1838-1920  
독일

콜 니드라이 (신의 날), 작품번호 47

10'

베토벤 1770-1827  
독일

교향곡 5번 다단조 '운명', 작품번호 67

34'

I. 빠르고 기운차게

II. 느리고 활기있게

III. 스케르초, 빠르게

IV.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 Didier Gourdon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http://www.richardmille.com)

L.v. Beethoven 1770-1827  
Germany

Egmont Overture in f minor, Op. 84

8'

R. Schumann 1810-1856  
Germany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25'

I. Nicht zu schnell

II. Langsam

III. Sehr lebhaft

---

INTERMISSION

---

CREDIA

M. Bruch 1838-1920  
Germany

Kol Nidrei, Op. 47

10'

L.v. Beethoven 1770-1827  
Germany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34'

I. Allegro con brio

II. Andante con moto

III. Scherzo. Allegro

IV. Allegro

---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More than Cinema

음악이 가장 완벽해지는 시네마 그 이상의 공간  
하이엔드 사운드를 통해 느끼는 최고의 감동



ORFEO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에그몬트 서곡 바단조,

작품번호 84

Ludwig van Beethoven

Egmont Overture in f minor,

Op. 84

에그몬트 백작(Count of Egmont: 1522-1568)은 16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장군이자 정치가로, 당시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스페인에 반대하여 빌럼 1세, 호른 백작 등과 함께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1567년에 네덜란드 총독으로 임명된 알바 공의 신교도 학살 때에 에그몬트 백작도 브뤼셀에서 참수되고 말았다. 이 일은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8년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독일의 대문호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87년에 에그몬트 백작의 이야기를 소재로 ‘에그몬트’라는 희곡을 썼으며, 베토벤(1770-1827)은 1810년에 이 희곡을 상연하기 위한 부수음악을 완성했다. 이 작품은 서곡을 포함한 일곱 곡의 관현악곡과 세 곡의 소프라노를 위한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악회에서는 독립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서곡이 자주 연주된다.

<에그몬트 서곡>은 힘차고 표현적인 작품으로, 베토벤의 중기를 마무리하는 위치에 있다. 관현악의 모든 악기가 힘차게 F음을 연주하며 시작한다. 매우 단순한 한 음 뿐임에도 강력한 에너지와 비극적인 운명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이 놀랍다. 폭풍우가 몰아치듯 극적이고 숙명적인 비통에 찬 장면과 영웅적이고 희망이 가득한 장면이 번갈아 진행되며, 마지막은 승리의 개가로 마무리한다.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첼로 협주곡 가단조,

작품번호 129

Robert Schumann

Cello Concerto in a minor,

Op. 129

어린 시절 첼로를 배웠던 슈만(1810-1856)은 과도한 연습에 의한 손가락 부상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을 때에 첼리스트의 길을 고민했을 정도로 첼로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첼로 협주곡>은 이 애정의 결정체로, 1850년에 슈만이 뒤셀도르프의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음악감독직을 맡은 직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단지 두 주 만에 작곡되었다.

이 곡은 독주자와 관현악이 대비되어 대결하고 대화하는 전통적인 협주곡과는 달리, 전체가 조화되어 하나의 양상블을 지향한다. 이것은 슈만이 음악은 ‘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관계가 있다. 슈만에게 ‘시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본성에 충실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지적이고 감정적인 진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독주 악기의 기교에 치중해있었던 당시 협주곡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예술에 공헌한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슈만은 이 곡의 제목을 ‘협주곡’이 아닌 ‘작품’(Stück)이라고 적음으로써, 다른 협주곡과 차별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악장



을 모두 쉽 없이 연결한 것 또한 협주곡보다는 환상곡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랐던 장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특징 탓에, 이 곡은 험난한 길을 걸어야 했다. 뒤셀도르프 관현악단의 젊은 수석 첼리스트였던 크리스티안 라이머스는 이 곡을 연습했지만 무대에 올리지 않았다. 출판도 두 번의 거절을 겪고 나서 1853년 11월에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에서 간신히 이루어졌지만, 결국 1860년 슈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초연되었다. 이후에도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한 이 곡은, 파우 카잘스가 열정적인 관심을 보인 덕분에 그 진가가 재평가되어 오늘날 슈만의 명작이자 낭만시대의 중요한 첼로 협주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막스 브루흐 1838-1920

콜 니드라이 (신의 날),

작품번호 47

Max Bruch

Kol Nidrei,

Op. 47

막스 브루흐(1838-1920)는 독일 낭만을 대표하는 천재적인 작곡가로 생전에 큰 명성을 떨쳤으며, 오늘날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오늘 연주되는 <콜 니드라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콜 니드라이>는 브루흐가 리버풀 교향악단의 지휘자로 재임(1880-83) 중이던 1880년에 작곡되었으며, 이듬해에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모두 경배’라는 뜻으로 ‘신의 날’이라고도 말하는 ‘콜 니드라이’는 유대교의 속죄일(Yom Kippur) 전날 밤에 부르는 경건한 기도 선율이다. 본래 이 선율은 낭독에 가까우며, 유대적이고 엄숙하며 경건하고 종교적이다. 브루흐는 <콜 니드라이>에서 이 기도 선율에서 가져온 두 개의 주제를 그의 아름다운 낭만적인 음악언어로 풀어냈다. 전반부는 첫 번째 선율이 변주되며, 후반부는 두 번째 주제가 관현악으로 제시된 다음, 독주 첼로가 이를 받아서 연주한다. 이 곡 때문에 브루흐는 유대인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유럽에서 반유대정서가 확대되던 19세기 후반에 독일인으로서 유대 선율을 사용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콜 니드라이>는 후에 브람스의 <이중협주곡>을 초연하는 첼리스트 로버트 하우스만에 의해 초연되었으며, 그에게 헌정되었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교향곡 5번 다단조 ‘운명’,

작품번호 67

Ludwig van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따따따따-니’으로 시작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1807)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 귀에 닳고 닳은 익숙한 곡이겠지만, 이 곡이 지닌 시대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따따따따-니’에 있다.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의미로 알려지면서 곡 전체가 ‘운명 교



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도가 높은 이 주제가, 단 두 마디의 길이에 G와 Eb 두 개의 음정과 네 개의 음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리고 3년 후 <에그몬트 서곡>에서는 F음 단 하나로 평정한다. 플라톤이 주장한 '일자'에 다가가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이 주제는 무서울 정도로 강박적이고 편집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서정적인 제2주제가 연주될 때에도 뒤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결국 제2주제를 집어 삼키며 운명에 굴복시키고 만다. 그리고 다른 모든 악장에서도 변형된 리듬으로 재등장함으로써, 모든 곳에서 임재하는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당시에는 대단히 독특한 것으로, 베를리오즈의 '고정관념'이나 프랑크의 '순환 주제', 바그너의 '라이트모티프' 등을 예견한다.

이 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영웅적인 피날레로 나아가는 '승리의 도그마'이다. 이미 <교향곡 3번 '영웅'>(1803)에서도 얼핏 보여주었던 이 개념은, <운명 교향곡>에서 1악장의 비통한 주제가 마지막에 밝고 웅장하게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각 악장을 보면, 운명이 엄습하는 1악장, 이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2악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3악장, 승리를 쟁취하는 4악장으로 각각 보아도 무리가 없다.

유례없는 대규모 편성도 새로운 시도였다. 당시 교향곡의 규모가 커지면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팀파니를 한 쌍씩 편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현악기의 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베토벤은 여기에 피콜로와 콘트라바순을 한 대씩 추가하고, 게다가 트롬본은 세 대나 편성했다. 이들은 마치 승리의 순간을 위해 준비한 듯, 모두 4악장에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트롬본은 큰 음량과 함께 화성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짜릿한 쾌감을 전달하는 주역이다.

그런데 1795년에 첫 스케치가 시작되어 1807년에야 완성될 정도로 12년의 오랜 배태 기간을 보냈지만, 이듬해 12월 22일 빈 극장에서 있었던 초연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흔들리는 베토벤이 이 연주회에 대해 "더 나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며, 시인이자 작곡가였던 E.T.A. 호프만은 여러 매체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 "감상자를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아름다운 작품" 등의 극찬을 썼다. 이후 오늘날까지 이 곡은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곡 중 하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앞서 설명한 운명의 주제로 강렬하게 시작한다. 이 주제는 대위적으로 혹은 총주로 등장하며, 이 악장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목관악기가 유연한 제2주제를 제시할 때에도 이 주제는 공존한다. 느린 2악장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승하는 금관의 연주가 인상적이다. 이 희망찬 주제는 사실 운명의 주제를 느리게 연주한 것이다. 3악장은 전투가 벌어진 듯 호른이 강하게 주제를 제시한다. 이 역시 운명의 주제 리듬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 악장은 스케르초로서,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민첩한 연주로 시작하는 중간 부분이 등장하고, 다시 첫 부분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이때는 현악기가 피치카토로 연주하며 기세가 한층 누그러져 있다. 씬 없이 이어지는 4악장은 눈부시게 도약하는 금관의 팡파르로 시작하며, 승리를 만끽하는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한다. 이 선율 역시 운명의 주제를 변형한 것이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단 10캐빈  
한정!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예뎬 브론프만)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데스아티쿠스 야외극장  
[공연3] 안드레아스 샤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공연5] 베이스-바리톤 어윈 슈르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프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 지휘자

토마스 체트마이어

**Thomas Zehetmair****Conductor**

토마스 체트마이어는 그의 음악적 관심사들을 능숙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음악가이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서뿐만 아니라 지휘자이자 실내악 연주자로서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 가장 저명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자리잡았다. 2016/17 시즌부터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으며, 1629년에 설립된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음악 전통을 자랑한다. 이번 시즌 브람스의 4개의 교향곡을 모두 녹음하는 특별한 도전이 펼쳐지며, 시즌 후반에는 브람스의 독주 협주곡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체트마이어는 2019/20 시즌부터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한다.

체트마이어는 수많은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녹음했고, 그의 음반들은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그 중에는 하인츠 홀리거의 지휘로 WDR 방송교향악단과 녹음한 B. A. 짐머만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2009 올해의 디아파종상),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2009 독일 음반 비평가상, 2010 미템 클래식 어워드), 마크 엘더 경의 지휘로 맨체스터 할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엘가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2010 그라모폰 상) 등이 있으며, 프란스 브뤼헨의 지휘로 18세기 오케스트라와 녹음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은 이 곡에 대한 중요한 해석으로 평가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의 듀오 파트너인 루트 킬리어스와 함께 작업한 <만토와 마드리갈>을 2011년 ECM 레이블에서 발매하며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현대음악 작품의 레퍼토리를 확장해나갔다.

2002년 체트마이어는 로열 노던 신포니아의 상임지휘자로 부임, 2014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오케스트라를 영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그는 다수의 작품들을 로열 노던 신포니아와 함께 녹음하였으며, 명예 지휘자로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체트마이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파리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ECM 레이블에서 슈만 음반을 발매하였다.

토마스 체트마이어는 전세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들이 선호하는 지휘자이자 솔리스트이다. 또한 미국의 세인트 폴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예술고문을 맡고 있으며, 체트마이어 콰르텟의 창립 멤버이다. 체트마이어는 그의 뛰어난 음악적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1월 독일 하나우 시로부터 파울 힌데미트 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음반 비평가상(Ehrenpreise)과 슈타이어마르크주로부터 카를 뵘 해석 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체트마이어는 바이마르의 프란츠 리스트 음악 대학과 뉴캐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Thomas Zehetmair's ability to skillfully blend his musical interests is unparalleled. He enjoys widespread international acclaim not only as a violinist, but also a conductor and chamber musician, making him one of the most prominent artistic personalities of today. Since the 2016/17 season he is Principal Conductor of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Founded in 1629,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has one of the richest musical traditions in Europe. This season, a special challenge will be recording all four Brahms symphonies. At the end of the season they will be presented in one cycle together with Brahms' solo concertos. Starting in 2019/2020, Zehetmair will take over the position as chief conductor at the Stuttgarter Kammerorchester.

Thomas Zehetmair has recorded the largest works of repertoire for the violin; many of his releases have earned multiple awards. These recordings include, among others, B. A. Zimmermann's violin concerto with the WDR Sinfonieorchester under Heinz Holliger ("Diapason d'Or de l'Année" 2009), 24 Paganini Caprices (Best List of the "Preis der deutschen Schallplattenkritik" 2009, Midem Classic Award 2010), a recording of Elgar's violin concerto with the Hallé Orchestra Manchester under Sir Mark Elder (Gramophone Award 2010) and Mozart's violin concertos with the Orchestra of the Eighteenth Century under Frans Brüggen, acclaimed as a reference recording. In addition, the recording "Manto and Madrigals" with his duo-partner Ruth Killius appeared in 2011 at ECM, where contemporary works for violin and viola can be heard.

Taking the helm of the Royal Northern Sinfonia as Principal Conductor in 2002, he sculpted it into one of England's leading orchestras during his term ending in 2014. As Conductor Laureate he will stay closely connected to the orchestra in the future. A number of recordings document his exceedingly prolific work with the orchestra. Between 2012 and 2015 he held the position of Principal Conductor of the Orchester de Chambre de Paris. An album published by ECM with works by Schumann documents the artistic collaboration.

Thomas Zehetmair is both a sought-after soloist and conductor among leading international orchestras worldwide. He is Artistic Partner at the Saint Paul Chamber Orchestra in the USA. Furthermore he is the founding member of the Zehetmair Quartet, with which he was awarded the Paul Hindemith Prize by the City of Hanau in November 2014 in recognition of outstanding musical achievement.

For his far-reaching artistic contributions, Thomas Zehetmair was awarded, among others, the certificate of honour by the Preis der Deutschen Schallplattenkritik as well as the Karl Böhm Interpretation Prize by the federated state of Styria. Thomas Zehetmair is an honorary doctor at the University of Music Franz Liszt in Weimar and Newcastle University.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

Mischa Maisky  
Cellist



CREA

© SUJESCH BAKHT / DG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는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미샤 마이스키가 “젊은 세대의 첼리스트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연주는 시와 정교한 섬세함, 위대한 기질과 찬란한 테크닉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며 극찬했다.

라트비아(당시 구소련)에서 태어나 구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로 귀환한 미샤 마이스키는 런던, 파리, 베를린, 비엔나, 뉴욕, 도쿄를 비롯한 세계의 여러 주요 공연장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미샤 마이스키는 자신을 ‘세계시민’이라고 자칭한다. “저는 이탈리아산 첼로를 연주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산 활을 쓰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산 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6명의 자녀는 4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스리랑카-이탈리아 혼혈입니다. 저는 일본 차와 미국산 전기를 운전하고 있으며, 스위스 시계를 차고 인도의 목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겐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주는 모든 곳이 모두 집같이 느껴집니다.”

도이치그라모폰(DG) 전속 아티스트인 미샤 마이스키는 지난 30년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파리 관현악단, 유럽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35장 이상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2018년 8월 그의 딸인 피아니스트 릴리 마이스키와 함께 녹음한 <아다지에도>를 발매하였는데, 마르타 아르헤리치, 재닌 안센, 올리안 라홀린,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사샤 마이스키와의 라이브 레코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가 수년간 꿈꿔왔던 프로젝트인 말리 교향곡 5번의 아다지에도를 멀티 트랙 버전으로 편곡하여 하프를 제외한 모든 파트를 마이스키가 연주한 곡이 포함되어 있다.

그의 신보는 2019년 가을에 발매된 <20세기 클래식>으로 미샤 마이스키에게 헌정되어 세계 초연한 벤자민 유스포프의 첼로 협주곡과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1번’의 멀티 트랙 레코딩이 수록되어 있다.

2000년도가 미샤 마이스키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그 해 바흐 투어로 전세계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했다. 또한 미샤 마이스키는 바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3번째로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Solo Suites)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미샤 마이스키의 레코딩은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권위 있는 도쿄의 레코드 아카데미상을 다섯 번 수상했고, 세 번의 독일 레코드상(Echo DeutscherSchallplattenpreis)을 수상했으며, 파리의 그랑프리 뒤 디스크상(Grand Prix du Disque), 올해의 디아파종 도르(Diapason d’Or)상 등을 수상했고 그래미상의 후보로 여러 번 선정되기도 하였다.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주요 국제 페스티벌의 단골 초청 연주자인 그는 레너드 번스타인,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로린 마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주세페 시노폴리,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다니엘 바렌보임, 제임스 레바인, 샤를 뒤투아, 유리 테미르카노프, 마리스 안손스, 발레리 게르기예프, 키릴 페트렌코, 파보 예르비, 구스타보 두다멜과 같은 지휘자들과 연주해왔다. 또한 마르타 아르헤리치, 라두 루푸, 넬손 프레이레, 예프게니 키신, 이차크 펠만, 랑랑, 피터 제르킨, 기돈 크레머, 유리 바슈메트, 바딤 레핀, 막심 벤게로프, 조슈아 벨, 올리안 라홀린, 재닌 안센 같은 저명한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Mischa Maisky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cellist in the world to have studied with both Mstislav Rostropovich and Gregor Piatigorsky.

Rostropovich lauded Mischa Maisky as “... one of the most outstanding talents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cellists. His playing combines poetry and exquisite delicacy with great temperament and brilliant technique.”

Born in Latvia, educated in Russia and later repatriated to Israel; Mischa Maisky has been enthusiastically received in London, Paris, Berlin, Vienna, New York, Tokyo and many other major music centres.

He considers himself a citizen of the world: “I’m playing an Italian cello, with French and German bows and Austrian and German strings, my 6 children were born in 4 different countries, my second wife is half Sri Lankan-half Italian, I’m driving a Japanese and an American electric car, I wear an Indian necklace and a Swiss watch and I feel at home everywhere where people appreciate and enjoy classical music.”

As an exclusive Deutsche Grammophon artist for more than 30 years he made well over 35 recordings with such orchestras as the Vienna, Berlin and Israel Philharmonics, the London Symphony, L’Orchestre de Paris, Orpheus und Chamber Orchestra of Europe and others.

In August 2018, the very personal album “Adagietto” was released with his pianist daughter Lily, and featuring bonus live recordings with Martha Argerich, Janine Jansen, Julian Rachlin and his violinist son Sascha Maisky. Included is a multi-track arrangement of Mahler’s Adagietto from his 5th Symphony with Maisky playing all parts (except the harp), a project the cellist had dreamed of for many years.

His latest recording, released in autumn 2019, is entitled “20th Century Classics” and includes a Bonus CD of the world premiere of Benjamin Yusupov’s cello concerto (dedicated to Mischa Maisky) as well as a multi-track recording of “Bachianas Brasileiras” of Villa Lobos.

Maisky’s recordings have enjoyed world-wide critical acclaim and have been awarded the prestigious Record Academy Prize in Tokyo five times and the Echo Deutscher Schallplattenpreis three times, as well as the Grand Prix du Disque in Paris and the Diapason d’Or of the Year, as well as receiving several coveted Grammy nominations.

One of the highlights of his career was the year 2000 - it was mainly devoted to a world-wide Bach tour of over 100 concerts! In order to express his deep admiration for this great composer Mischa Maisky has also recorded Bach's Solo Suites for the third time.

Truly a world-class musician and a regular guest at most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he has collaborated with such conductors as Leonard Bernstein, Carlo Maria Giulini, Lorin Maazel, Zubin Mehta, Riccardo Muti, Giuseppe Sinopoli, Vladimir Ashkenazy, Daniel Barenboim, James Levine, Charles Dutoit, Yuri Temirkanov, Mariss Jansons, Valery Gergiev, Kirill Petrenko, Paavo Järvi and Gustavo Dudamel. His musician partnerships have included artists such as Martha Argerich, Radu Lupu, Nelson Freire, Evgeny Kissin, Itzhak Perlman, Lang Lang, Peter Serkin, Gidon Kremer, Yuri Bashmet, Vadim Repin, Maxim Vengerov, Joshua Bell, Julian Rachlin and Janine Jansen to name just a few.





미샤 마이스키 & 딸 릴리와  
함께 연주한 20세기 첼로 소품집

# MISCHA & LILY MAISKY

## 20<sup>TH</sup> CENTURY CLASSICS



“첼로의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가 구현된 완벽한 예” – 벤자민 유수포프

20세기 첼로 레파토리를 대표하는 브리튼·블로흐·스트라빈스키·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 수록  
보너스 CD '브라질 풍의 바흐 1번' & 벤자민 유수포프 작곡·지휘 '첼로 협주곡'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 Musikkollegium Winterthur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1629년 창설된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다. ‘슈타트오케스터 빈터투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21세기 초,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전, 초기 낭만주의, 20세기 작품을 망라하는 레퍼토어를 소화하는 이 오케스트라는 21세기에 들어, 프란츠 벨저-프리트(1987-1990), 야노스 퀴스트(1990-1994), 하인리히 쉬프(1995-2001), 약반 스텐(2002-2008) 등의 수석지휘자를 거치며 스위스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더글라스 보이드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하였고, 취리히 오페라하우스 프로젝트, 독일, 스위스 투어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지며, 수많은 음반을 함께 제작하였다. 2016-2017 시즌부터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지휘봉을 잡고 있다.

매년 펼쳐지는 약 70회의 공연 중 약 40회가 슈타드하우스 빈터투어에서 열리고 있는데,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많은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안드라스 쉬프, 알렉산더 룬크비히, 솔 가베타, 미샤 마이스키, 파질 세이, 그리고 에마누엘 파후드와 같은 세계 정상급의 솔리스트들과의 협연 무대로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의 위상을 높여 주었으며, 동시에 젊은 독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는데 테오 고르후, 키트 암스트롱과 같은 재능 있는 연주자들과 여러 시즌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 했다. 최근 몇 년간,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두드러지는 청소년 사업을 통해 여러 개의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초청 행사는 물론 도서, CD, DVD,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를 위해 슈트라우스, 스트라빈스키, 베베른 등 세계적 작곡가들이 작품을 작곡하였다.

헤르만 세르헨,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프리츠 부쉬, 요제프 카일베르트, 아르맹 조르당과 같은 전설적인 지휘자들이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며, 최근에는 베르나르 라바디, 테오도어 구슬바우어, 하인츠 홀리거, 미하엘 잔데를링, 미하일 플레트노프 등 거장들이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솔리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 루돌프 부흐빈더, 안드라스 쉬프, 모리스 슈테게와 같은 세계적 음악가들과의 공연을 통한 예술적 교류로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was formed in 1629, making it one of Europe's oldest musical institutions. The orchestra now gives some seventy concerts per season, about forty of them in Winterthur. The ensemble increasingly takes part in major concert series abroad. CD recordings of works by Frank Martin, Franz Schubert, Josef Rheinberger (ECHO Klassik 2011), Felix Mendelssohn Bartholdy and Ralph Vaughan Williams (ECHO Klassik 2013) have drawn international attention to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Thomas Zehetmair,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violinist and conductor, has been the orchestra's chief conductor since 2016.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mposers such as Igor Stravinsky, Richard Strauss, Anton Webern, Paul Hindemith, Othmar Schoeck and Arthur Honegger composed for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through their patron Werner Reinhart; their music is still vividly present in today's concert program.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has proven strong and pioneering in its commitment for young people - the various formats for children bring about 5'000 children into the concerts and rehearsals annually. Further, new and experimental concerts are an important factor of the orchestra's profile. Aside from organizing and performing an annual Classic Openair in a beautiful local park, it presents formats such as classic in the club, "Classic Circus" or "Film & Musik".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has featured in books, CD and DVD projects as well as in a documentary film. Famous soloists and conductors like Martin Helmchen, Heinz Holliger, Sir András Schiff, Michael Sanderling, Christian Tetzlaff and Reinhard Goebel value a regular collaboration with the orchestra. In recent years, the Musikkollegium Winterthur has proven pioneering in its work with young artists. The purposeful and lasting promotion of talented young musicians like Kit Armstrong or Teo Gheorghiu is of special concern.

[www.musikkollegium.ch](http://www.musikkollegium.ch)

swiss arts council  
**prohelvetia**



 **Kanton Zürich  
Lotteriefonds**

# MUSIKKOLLEGIUM WINTERTHUR

## Principal Conductor

Thomas Zehetmair

## FIRST VIOLIN

Ralph Orendain ◊

Roman Conrad

Rahel Cunz

Birgit Thorgerd Löffler

Timotheus Schläpfer

Vera Schlatter

Ryoko Suguri

Hanna Magdalena

## SECOND VIOLIN

Anzhela Golubyeva Staub

Beata Checko-Zimmermann

Ines Hübner

Mija Läuchli

Helge Netland

Brice Olivier Mbakop

## VIOLA

Matthijs Bunschoten

Nicolas Corti

Natalia Golubi

Ivona Krapikaite

Mika Kamiya Tanner

## CELLO

Cäcilia Chmel

Anikó Illényi

Franz Ortner

Iris Schindler

Seraphina Rufer

Karl Stauber





◇ Concert Master

**DOUBLE BASS**

Josef Gilgenreiner  
Egmont Rath  
Kristof Zambo

**FLUTE**

Nolwenn Bargin  
Dimitri Vecchi

**OBOE**

Maria Sournatcheva  
Franziska van Ooyen

**CLARINET**

Sergio Pires  
Armon Stecher

**BASSOON**

Valeria Curti  
Daniele Galaverna

**HORN**

Jennifer Aynilian Druey  
Romain Flumet  
Tomas Gallart  
Gaëtan Lagrange

**TRUMPET**

Ernst Kessler  
Pierre-Alain Monot

**TROMBONE**

Frédéric Bonvin  
Werner Keller  
Sebastian Koelman

**TIMPANI**

Kanae Yamamoto



## 올가을,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앙상블과 만난다 미샤 마이스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가 토마스 체트마이어가 이끄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내한한다. 2017년 유럽 투어를 통해 호흡을 맞춰온 이들은 10월 중 강릉(24일), 서울(25일), 대구(26일) 등 3개 도시를 찾아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 슈만의 첼로 협주곡,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신의 날’을 연주한다. 레퍼토리도 알차지만 최고의 악단과 수많은 음악인들의 존경을 받는 토마스 체트마이어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의 만남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1992년 월간 <음악동아> 12월호는 유료 관객수로 그해 클래식 공연을 결산한 적이 있다. 소프라노 조수미와 홍혜경이 각각 1884명과 1816명을 동원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3위는 1758명을 불러들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였다. 88년, 90년에 이어 불과 세 번째 내한 공연 만에 티켓 파워가 가장 센 외국인 연주자가 된 셈이다. 마이스키의 스승이자 살아 있는 전설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도 그해 한 달 차로 내한 공연을 펼쳤지만 7위에 그쳤다. 흔히 마이스키는 내한 연주를 거듭하면서, 또 90년대 중반 제자 장한나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조사를 보면 마이스키를 향한 한국인의 애정은 내한 연주회를 거듭하면서 쌓인 것이 아니라 이미 활동 초기에 굳어진 것이란 점을 알 수 있다.

마이스키는 어떻게 단숨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인 연주자로 자리매김했을까. 그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음반(도이치 그라모폰, DG)이 라이선스로 발매된 1987년 봄이다. 당시 매체들은 지금도 유효한 카피,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티고르스키를 사사한 유일한 첼리스트’로 그를 소개했다. 동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에서 활동한 두 거장을 스승으로 삼는 일은 드라마틱한 삶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널리 알려졌듯이 마이스키는 18세인 1966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출전하며 심사위원이었던 로스트로포비치와 운명적인 조우를 했다. 그는 자국 참가자 5명 중 유일하게 로스트로포비치의 제자가 아니었다. 비주류인데다 실력도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지만 잠재력은 대단했다. 마이스키는 6위에 입상했고 콩쿠르 후 로스트로포비치를 사사하며 첼로뿐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하지만 누이 가족이 1969년 이스라엘로 망명한 뒤 ‘잠재적 망명자’로 몰리고 마침내 당국이 놓은 덫에 걸려 밀수범 신세가 됐다. 4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 14개월 동안 노동 교화소에서 할 대신 삼을 든 그는 교화소 내 친

한 의사에게 힘을 써 예정된 군입대 대신 정신병원 근무로 빠졌다. 이후 1973년 당국의 묵인하에 이스라엘로 극적 ‘송환’(마이스키는 망명 대신 이 단어를 쓴다)된다.

마이스키는 중단된 수업을 마치기 위해 새로운 스승을 찾아야 했다. 유대인의 대부 아이작 스텐은 그의 사단인 줄리아드 음악원의 레너드 로즈를 추천했다. 그 제안을 받았다면 마이스키는 7세 연하 요요 마와 같은 시기에 로즈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트로포비치는 ‘프랑스 악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강권하며 모리스 장드롱, 폴 토르틀리에, 앙드레 나바라를 거론한 끝에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SC)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피아티고르스키를 추천했다. 같은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서 둘은 음악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이 같았다. 불과 몇 개월간 지속된 가르침이었지만 마이스키는 이후 수십 년을 지탱한 영감의 원천을 얻었다. 그가 로즈를 택했다면? 요요 마 자리를 대신 꺾치고 아이작 스텐 밑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을지 모른다. 마이스키도 비슷한 상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덕분’에 형성된 ‘유럽 vs 미국’의 라이벌 구도는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안겨줬다.

사람들은 영화같은 삶이 프레이징에 녹아 있다고 느낀다. 앞서 언급한 마이스키의 바흐는 ‘노란 딱지’(DG의 별칭)가 붙은 동곡 첫 녹음이다. 독일 국가 대표 레이블이 자국 국민 음악가의 대표작 녹음에 마이스키를 기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애호가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감정을 풍부하게 실은 해석은 이지적인 기존 명반들과 차별화가 됐다. 센티멘털한 요소는 한쪽에선 비판받았지만 대중적인 호소력을 더했고, 금세 푸르니에(Archiv)와 요요 마(CBS)의 인기를 추월했다. 아담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1988년 첫 내한 연주회는 마니아들을 열광시킨 팬클럽 분위기였다. 90년 두 번째 내한 때부터는 장소를 예술의전당으로 바꿔야 할 만큼 청중이 늘어났다. 이후로 그는 기획사가 반기는 흥행불패의 아이콘이 됐다. 마이스키가 한복 차림으로 표지를 장식하고 한국 가곡을 연주한 소품집은 5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DG 본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마이스키 역시 “한국 청중 앞에 설 때 내 음악성이 가장 돋보인다”고 했다. 마이스키와 한국은 어느 한편의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 마이스키의 연주로 꼭 듣고 싶었던 첼로 레퍼토리들

마이스키는 24차례나 한국을 찾았다. 그보다 더 많이 방문한 외국 음악인이 있을까. 횡수만큼 콘텐



츠도 풍성했다. 다리아 호보라, 세르지오 티엠포 등 전문 파트너뿐 아니라 김금봉(1988년), 백혜선(2004년) 등 국내 피아니스트와도 호흡을 맞췄다. 호텔에서 프라이빗 콘서트를 열고(97년) ‘채시라의 토요일객석’(99년) 등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폭넓은 팬층을 만나려 노력했다. 2013년 2월 예정된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의 듀오 콘서트가 아르헤리치의 건강 문제로 무산되자, 급하게 레퍼토리를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으로 바꿔 관객과의 약속을 지킨 미담은 지금도 회자된다. 외국 연주자의 지방행 물꼬를 튼 이도 마이스키다. 서울로 한정됐던 무대는 2000년대 들어 대구, 통영, 울산, 청주 등으로 확대됐다. 올 4월엔 통영 인근 욱지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섬마을 콘서트를 열어 “한국인도 하기 힘든 선물을 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2009년부터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딸 릴리와 함께 한국을 찾고 있으며 2011년엔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들 사샤가 합류하며 오랜 꿈인 가족 피아노 삼중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마이스키에 따르면, 로스트로포비치는 릴리가 첼로가 아닌 피아노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크게 상심했다. 그 때문인지 마이스키는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늦둥이 아들에겐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

올 상반기 통영국제음악제에 참석했던 마이스키가 하반기에도 한국을 찾아온다. 2011년에 이은 한 해 두 번 내한. 이번엔 스위스의 유서 깊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협연하며 슈만 협주곡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선보인다. 슈만 협주곡은 마이스키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코어 레퍼토리다. 1850년 가을, 단 2주 만에 일필휘지로 쓰였는데 작곡가 사후에야 초연됐을 정도로 빛을 못 봤고, 그 탓에 낭만파 첼로 협주곡 중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다. 슈만의 내성적인 낭만성이 농축돼 있어 첼로 편에겐 보석 같은 작품이지만, 작곡가가 처음엔 ‘작은 협주곡’(Konzertstueck)이라고 이름 붙였을 만큼 형식이 단출하고 길어도 25분 남짓 짧다. 간주풍의 느린 2악장을 사이에 두고 열정적인 1악장과 치열한 3악장(이례적으로 반주 카덴차가 붙은)이 휴지 없이 연결돼 있다.

마이스키는 첫 바흐를 녹음한 해에 번스타인, 빈 필과 이 작품을 녹음했다. 첼로 협연을 얹기로 유명한 번스타인이 로스트로포비치에 이어 마이스키와 두 번 녹음한 작품이기도 하다. 로스트로포비치가 밖으로 발산하는 힘을 전달했다면 마이스키는 안으로 연소시키는 열정을 담았다. 이 작품은 피아티고르스키도 즐겨 연주했다. 선 굵은 조형미와 섬세한 프레이징이 조화를 이룬 마이스키의 해석은 두 스승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느낌을 준다. 마이스키는 이 곡을 2000년 오르페우스 체임버와 다시 녹음할 만큼 애착을 보였고, 한국 무대에선 2003년 룩셈부르크 필과의 협연을 통해 실연하기도 했다.

## 체임버형 악단의 톱클래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한국을 처음 찾은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취리히 근교 빈터투어를 근거지로 1875년 창단했다. 모태가 된 성가대의 연원을 따지면 16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명 규모의 전형적인 ‘체임버형 악단’이며, 국내엔 덜 알려졌지만 유럽에선 톱클래스 앙상블로 정평이 나 있다. 2016년부터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 토마스 체트마이어는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처럼 군살 없이 담백하고 상쾌한 해석을 중시한다. “모든 음악은 낭만적”이란 마이스키와 그 반대편 극단에 위치한 악단이 어떤 중화 작용을 일으켜 접점을 찾을지 기대된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는 인기 첼로곡인데다 유대인인 마이스키에게 특화된 작품이기도 하다. 두 개의 히브리 멜로디를 이용해 첼로와 악단이 서로 대화하듯 변주하는 악곡. 첫 주제는 d단조의 느리고 슬픈 음률로 유대교 명절인 속죄일에 읊는 ‘콜 니드레’(기도곡)에서 따왔고, 다른 하나는 D장조의 밝고 다소 빠른 음률로 영국 작곡가 아이작 네이션의 작품에서 차용했다.

기악 프로그램인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과 교향곡 5번 ‘운명’은 악단이 장기로 삼고 있는 고전파 관현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올해 발매된 브람스 교향곡 전집(Claves)에서 체트마이어와 악단은 투명한 현의 질감과 청아한 목관의 울림, 응집력 있는 관악 사운드로 작지만 밀도 있는 브람스를 그려내 듣는 이를 매료시켰다. 현대악기를 활용한 원전연주 버전처럼 와 닿는다. 이들의 ‘운명’ 역시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상투적인 표제성보다 합주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글 | 이재준 (음악 칼럼니스트)

위 글은 <클럽 발코니 Club BALCONY> 94호에서 전제한 기사입니다.



## 인터뷰 with 미샤 마이스키

한국인이 특히 사랑하는 첼리스트로, 내한 연주도 자주 해오셨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에게 한국 무대와 한국 관객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국에는 1988년부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연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나 멋진 관객들,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나라, 맛있는 음식, 따뜻한 환대 덕분에 항상 멋진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저와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나라인데요, 제가 평소에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없지만, 유일하게 제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의 첼리스트 장한나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지휘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한나는 지휘자로, 저는 솔리스트로 함께 연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내년에도 그녀와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제겐 6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장한나는 제게 또 다른 딸과도 같습니다. 음악적인 딸이요.

이번에 슈만 협주곡과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들려주실 예정이신데, 두 곡의 매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가장 아름다운 첼로 협주곡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첼로 협주곡이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이 걸작을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제게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두 차례 녹음했는데요, 첫 번째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빈 필하모닉과 함께했고, 두 번째는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지휘자 없이 녹음했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 빈터투어 지방의 작지만 훌륭한 오케스트라인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 함께 연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인 토마스 체트마이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이자 오랜 친구이고 정말 특별한 연주자입니다. 수년 전부터 그와 함께 실내악을 연주했고, 그의 지휘로도 여러 번 함께 협연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연주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도 길이는 짧지만 무척 특별한 작품입니다. 다만 이 음악에 대해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영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바로 음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느끼고, 웃고, 이해하는 것들을 제 연주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공연장에 직접 오셔서 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의 호흡은 어떠신가요? 이 단체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이지만, 이와는 다르게 젊은 마인드를 가진 젊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2년 전에 유럽에서 연주했을 때의 호흡이 좋았고, 모두들 즐거워했으며 공연의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음악을 함께 만들어 한국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번에 상임지휘자로 있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와의 한국 투어를 앞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연주자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한국 관객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오케스트라이지만 생소한 한국 관객들도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지닌 악단인지 소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대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전에 제작한 영상에는 빈터투어에서의 국제 작곡 콩쿠르의 best 10 작품이 담겨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이 작품들은 곧 온라인 [www.rychenbergcompetition.ch](http://www.rychenbergcompetition.ch) 에서 발매될 예정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와의 호흡은 어떠신가요? 그가 협연하는 첼로 협주곡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마이스키와 저는 35년 정도 서로 알아오며 라벨 듀오부터 브람스 6중주까지 많은 실내악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브람스 이중 협주곡도 몇 번 연주했죠. 2017년 독일과 암스테르담 투어를 함께한 이후에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기쁩니다.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의 지휘를 맡은 이후 생긴 변화가 있다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스타일에 맞는 개별적이고 구분적인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 작업을 진행했죠. 브람스 프로젝트에서는 당시 시대에서 교향곡이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세세한 묘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과 매우 다르게 훨씬 자유롭고 루바토와 아티큘레이션이 강하죠. 재미있는 작업이었어요.

이번 연주 레퍼토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 곡들을 선정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베토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최고이기 때문이죠!

슈만은 생전에 굉장히 저평가 받았습시다. 특히 후기 작품에서요. 요즘에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이 가장 아름답고 독창적인 첼로 협주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가 정말 예술적으로 얽혀 짜여 있고, 모든 음표가 중요하죠.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는 히브리 선율과 작곡가 아이작 네이션(Isaak Nathan)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샤 마이스키가 여러 번 연주했었는데 저도 마이스키와 함께 다시 연주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휘자 장한나가 이끄는 해외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특별한 무대에 화려함을 더할 피아니스트 임동혁

Han-Na Chang  
&  
Dong Hyeok Lim  
Trondheim Symphony Orchestra

# 장한나 & 임동혁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 피아니스트 임동혁



그리그 페르균티트 모음곡 1번 |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단조 (협연: 임동혁) |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B단조 '비창'

2019.11.13 WED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1.14 부산문화회관 | 11.16 대구콘서트하우스 | 11.17 익산예술의전당

BEETHOVEN 250<sup>th</sup> ANNIVERSARY

ANNE - SOPHIE MUTTER  
VIOLIN RECITAL  
PIANO - LAMBERT ORKIS

#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세상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 Telegraph

사운드, 스피드, 파워, 개성.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다!

- New York Classical Review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4번 A장조, Op.23 | 바이올린 소나타 5번 F장조, Op.24 '봄' |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Op.47 '크로이처'

2019.11.29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SARAH CHANG VIOLIN RECITAL  
JULIO ELIZALDE, PIANO

12월, 사라 장이 온다!  
세계를 장악한 그녀의 7년 만의 내한 리사이틀

바르톡 루마니아 민속 무곡 |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 엘가 사랑의 인사 | 바치니 고블린의 춤 | 드보르작 로망스 | 라벨 치간느

**2019.12.29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17 대구수성아트피아 | 12.20 울산예술회관 | 12.21 안양예술의전당 | 12.24 천안예술의전당 | 12.25 동해문화예술회관 | 12.27 고양아람누리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 미샤 마이스키 &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지휘: 토마스 체트마이어

#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 CREDIA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